

종교교육학연구 제17권. pp.79~105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12

## 기독교 대중음악과 종교교육

孫元暎

(서울기독교대학교)

---

### 《요약》

---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CCM 으로 불려지는 기독교대중음악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라이브공연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CCM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새로운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세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된다. 첫째, 대중문화로서 기독교대중음악은 어떻게 정의되고 또 분류될 수 있는가? 둘째, 문화란 의미를 만드는 실천이라고 할 때, 기독교문화적 실천으로서의 기독교대중음악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셋째, 앞의 논의를 통해, 향후 종교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상의 탐구주제를 통해, 연구자는 기독교 종교교육이 기독교적 문화교육으로 재개념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CCM 이 문화적 실천으로써 적어도 해방적 실천, 해석학적 실천, 그리고 영성적 실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기독교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종교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대중문화, 기독교대중음악, 의미를 만드는 실천, 프락시스, 종교교육

---

## I. 서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이 명제 속에는 문화가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성장의 둔화를 경험하면서, 동구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인터넷으로 표상되는 디지털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문화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변화의 요구는 무엇보다 대중문화를 통해 제기되었고, 한국교회는 대중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목회 및 새로운 종교교육의 도전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한국교회가 영혼구원이라는 명목으로 성장 지향의 종교교육을 강조하였다면, 이제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문제삼고 기독교 종교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정할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sup>1)</sup>

이런 점에서 현대문화의 첨병인 대중문화의 한 형식으로 등장한 기독교 대중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한국 기독교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논고를 통해, 다음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대중음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둘째, 기독교 대중음악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 기독교 대중음악이 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II. 기독교 대중음악의 개념과 유형분류

### 1. 기독교 대중음악의 개념

기독교 대중음악은 우리나라에 199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대중음악의 장르로 자리잡은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CCM 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 용어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오래되었으나,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매우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sup>2)</sup> 그 동안 CCM 대신 가스펠 송'(Gospel Song)이란 말을 번역하여 복음성가'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여졌다. 여기서 복음성가란 기독교 음악 중에서 교회에서 주로 예배 때 사용하는 찬송가나 성가를 제외한 대중적 스타일의 음악을 의미한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CCM 이 대중음악계에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큰 구분없이 함께 사용되어왔던 용어들은 이제 보다 명료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1) 손운산, <제3의 공간으로서의 교회>, 《문화쉼터 5주년 기념자료집: 아름다운 이들의 만남 문화쉼터》, 창천교회문화쉼터 사무국, 2000, 29-32 쪽 참조.

2) CCM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동복, 《새로운 대중음악 CCM》,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제1-2장 참조.

본래 CCM이란 말은 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다.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가스펠송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복음적인 내용(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래들을 가스펠 음악(Gospel Music)으로 통칭해왔다. 그런데 흑인들이 특유의 음악 스타일을 발전시켜 가면서 보통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블랙 가스펠(Black Gospel)을 하나의 장르로 정착시켰는데, 이것은 그 창법이나 음악스타일이 다른 것과 확연히 구분되었다. 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미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컨츄리풍의 서던 가스펠(Southern Gospel)을 오랫동안 불러왔던 것이다. 그런 전개 속에서, 1950년대에 이르러 흑인음악과 백인음악이 섞여 만들어진 로큰롤(Rock'n'Roll)이 등장하면서 기독교 관련 음악에도 블랙 가스펠이나 서던 가스펠의 맥과는 다른 음악, 곧 로큰롤 스타일의 음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음악은 외양적으로는 일반 팝 음악과 구별되지 않지만, 내용은 기독교적인 것을 다루고 있었다. 이 음악이 바로 CCM이다. 결국 CCM이란 일반 대중음악의 스타일을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 내용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기독교 대중음악의 유형

기독교적 가치관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현대 대중음악 스타일의 기독교 음악, 곧 CCM은 이제 국내에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될 수 있을까? 현재 국내에서 불리는 CCM은 일반적으로 찬송가와 성가를 제외한 음악, 곧 복음성가를 포함한 대중음악 스타일의 기독교 음악 전체를 의미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복음성가 대신 CCM이란 용어가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CCM의 유형을 분류하여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대중음악을 이해하는데 더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자는 기독교 대중음악이 지닌 관심의 지향성에 따라 경배와 찬양의 유형, 성도의 교제의 유형, 그리고 이웃선교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 1) 경배와 찬양의 유형

경배와 찬양의 유형은 음악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유형은 기독교 대중음악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성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신6:5; 눅10:27)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대중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요,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중음악은 두란노의 경배와 찬양모임이나 워쉽 댄스, 예수전도단의 경배와 찬양 등의 소위 열린예배의 음악형태를 들 수 있다.

## 2) 성도의 교제의 유형

성도의 교제의 유형은 기독교 대중음악을 교회와 성도의 사귀를 위한 음악으로 보려는 입장이다. 여기서 교회'(ecclesia)란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라는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sup>3)</sup>에서 볼 때, 기독교 대중음악은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음악이요,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한 음악이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음악이다. 사실 이 유형은 앞의 경배와 찬양의 유형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앞의 것이 주로 하나님과 성도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강조한 음악이라면, 후자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음악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성도의 교제의 유형은 기독교 대중음악이 성도간의 친교 속에서 오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CCM 아티스트들의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박종호, 송정미, 소리엘, 김명식 등의 CCM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3) 이웃선교의 유형

이웃선교의 유형은 기독교 대중음악이 이웃을 위한 음악임을 중시하는 형태이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눅10:27)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음악이다. 비록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요,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세상이다. 따라서 기독교 대중음악은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좋은 노래로서 삶을 반성케 하고 또 의미를 실천하도록 하는 음악이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경우는 국내의 경우, 창천교회의 목요섬터의 착한 노래만들기<sup>4)</sup> 프로그램이나 홍순관 등의 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이 개념은 루터의 교회론으로 알려져 있다. Martin Luther, "The Papacy at Rome"(1520);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212쪽.

4) 착한 노래만들기는 본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실시한 시사토론회의 결과로 시작된 노래운동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 첫 공연은 기윤실의 후원으로 하덕규, 백창우, 이무하, 홍순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상업주의적 대중방송에서 소외되어져 가는 노래들을 살려내고, 콘서트를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기독교 대중음악은 한국의 상황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첫 번째 유형의 기독교 대중음악인 ‘경배와 찬양’의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인 ‘성도의 교제’의 유형이 한국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CCM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사된 2002년도의 국내 CCM Best 10의 결과에서 잘 나타난다.<sup>5)</sup> 이것은 소위 복음성가’(Gospel Song)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대중음악이 CCM이라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현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의해 애창되는 기독교 대중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두가지 형태의 기독교 대중음악은 기독교인을 위한 음악, 교회만을 위한 음악으로 제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될 수 있다. 특히 신정통주의신학 및 복음주의신학으로 대별되는 교회중심의 신학이 그 한계를 드러낸 이후, 해방신학(혹은 한국의 민중신학, 여성신학), 수정주의신학, 혹은 동양신학이나 종교신학 등의 신학자들은 신학의 사명을 더 이상 교회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 특히 억압당하는 수많은 여성과 생태계, 그리고 이웃종교와의 대화에까지 그 반성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 대중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유형 및 교회와 기독교인을 위한 성도의 교제의 유형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이웃과 세상을 향한 음악으로까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3. 대중문화로서의 기독교 대중음악

앞에서 살펴본 기독교 대중음악이 넓은 의미로 대중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보다 넓게 고찰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대중문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독교 대중음악의 문화적 성격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문화의 개념과 기독교 대중음악

통해 착한 노래를 외로이 불러왔던 혹은 들어왔던 이들의 만남을 가시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착한 노래만들기’란 일상 속에서 정직을 주고받으려는 정신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자세한 것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제70호(1994.11), 5-15쪽 참조.

- 5) ‘찬양마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국내 CCM Best10은 다음과 같다. 순위/곡명/방송된 음반: 1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김승희 라이브). 2위, “주만 바라볼지라”(다윗과 요나단 20주년). 3위, “기대”(워킹 1집). 4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전하세 예수 14). 5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조수아3). 5위, “소원”(꿈이 있는 자유3). 7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트리니티 레드). 8위, “나 무엇과도 주님을”(웅기장이 워십1). 9위,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영산싱어즈). 10위, “마음이 상한 자를”(I worship You). 10위. “주께 가오니”(N세대워십). [http://ccm.fgtv.com/C\\_3/PC\\_42\\_L.asp?page=6&num=82&division=3](http://ccm.fgtv.com/C_3/PC_42_L.asp?page=6&num=82&division=3).

먼저 문화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다. 학자들 사이에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은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소개한 문화의 개념과 관련된다.<sup>6)</sup> 그는 세 가지의 의미로 문화의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첫째, 문화(culture)라는 용어는 영어권에서 '경작하다' 혹은 '양육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뒤, 그것이 점차 추상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서 '지적·정신적·심미적인 계발의 일반적 과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특히 이 개념은 문화를 '인간 사고와 표현의 정수'라고 정의한 아놀드(Matthew Arnold)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7)</sup> 이 입장에서 문화란 인간사고와 표현의 정수를 알기 위한 수단이요, 지식체계요, 정신과 영혼의 내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념에 근거한 문화란 '우리 시대의 병든 영혼을 보살피는 기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중문화는 문화를 거스르는 일종의 '무정부'(anarchy)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 입장은 계몽주의와 관련을 맺으면서 계몽주의의 완성을 문화의 과정으로 파악한 뒤, 그 목표는 서구 유럽인들이 상정한 이른바 '문명화'(civilization)로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둘째, 문화란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집단의 특정 생활방식'이라는 정의이다. 이 정의는 주로 문화인류학적 전통 위에서 있는 개념의 정의로써, 특정 시간대의 문화, 특정 집단의 문화 등 집단별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의미 혹은 삶의 방식을 문화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문화의 우월성이 아니라 문화적 상대성이 중요시되는 개념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정의를 갖고 문화를 설명한다면, 지적이고 미학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교육정도나 여가, 운동과 종교적 축제까지 문화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선 문화의 정의는 문화를 복수로 파악하여 '문화들'(cultures)로 설명하곤 한다.

셋째, 윌리엄스는 문화란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의미를 생산하거나 혹은 의미생산의 근거가 되는 것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는 텍스트(text)<sup>8)</sup>나 혹은 그 문화적 실천행위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란 구조주의자들이 종종 언급하는 '의미를 만드는 실천'(signifying practices)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앞의 두 번째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문화가 무엇인가라는 관심보다는 문화가 무엇을 하는가'라는 상징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그래서 문화란 산물

6) Raymond Williams, *Keywords*, London: Fontana, 1983, pp.87ff.

7) Matthew Arnold, *Culture and Anarch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6.

8) 여기서 텍스트는 본래의 뜻인 문학적 작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기호학적 체계를 지칭한다.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모든 산물, 즉 영화, 그림, 음악, TV 광고도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도 아니고 존재의 상태도 아니며, 인간이 의미를 창출해내는 실천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9)</sup>

이상의 세 가지 문화의 개념에 견주어 볼 때, 기독교 대중문화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우선 기독교 대중문화는 ‘연간사고와 정수의 표현’이라는 아놀드식의 문화의 개념과 연결하여 볼 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전통적인 교회음악, 곧 바하, 헨델, 그리고 고전음악 스타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교회음악 및 찬송가 등과 비교할 때, 기독교 대중음악은 연간사고와 정수의 표현이 부족한 열등한 음악으로 이해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회의 위계를 거스르는 부정부적 음악’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독교 대중음악은 전통적인 교회음악에 익숙한 교회와 기독교인에 의해 그렇게 경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기독교 대중음악이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문화적 상대주의의 측면이 중시되는 한 집단의 특정 생활방식’이란 차원으로 이해될 때, CCM은 미국교회의 대중문화적 특징이 한국에 수입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CCM은 처음에 미국교회의 복음성가를 번안하여 불렀고, 현재까지 그 음악 스타일에 있어서 미국교회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대중음악이 미국교회의 문화식민지적 경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과거보다 많은 CCM 아티스트들이 등장하여 독특한 창작활동을 펴고 있지만,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기독교 대중음악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한국적인 음악스타일이 반영된 기독교 대중음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란 “의미 있는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의미를 만드는 실천”(signifying practices)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기독교 대중음악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암시한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대중음악은 대부분 미국교회를 배경으로 성장하여왔다면, 이제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을 위한, 그리고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기독교 대중음악이 창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앙고백적 음악을 나의 것으로 전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고민을 음악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경배와 찬양의 유형과 성도의 교제의 유형이라는 교회 중심의 기독교 대중음악이 주로 창작되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다양한 음악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모습이라 평가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아래에서 문화란 의미를 만드는 실천”이라는 개념 정의 위에서 기독교 대중음악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9)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1996, 17쪽.

## 2) 대중문화와 기독교 대중음악

기독교 대중음악이 대중문화의 한 장르라고 할 때, 그것은 대중문화라는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중문화라는 개념은 매우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여기서 애매(am biguous)하다는 의미는 대중문화가 지시하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문화와 비(非)대중문화의 경계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며, 모호(vague)하다는 의미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에 따라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어 사용된다는 의미이다.<sup>10)</sup> 이러한 어려움에도 대중문화의 개념을 설명하면, 스토리(John Story)의 정의가 주목을 끈다. 스토리가 제시한 대중문화의 개념은 다음 여섯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sup>11)</sup> 그것은 첫째로, 대중문화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좋아하는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베스트셀러와 높은 시청율과 같이 양적으로 큰 범위를 점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대중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두 번째의 정의는 고급문화라고 결정된 것 이외의 문화를 가리키는 입장이다. 이 정의에서 대중문화는 잔여범주로, 고급문화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 문화적 텍스트와 실천행위들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하의 문화로 규정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입장의 대중문화는 아놀드식의 문화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써, 대중문화란 열등한 저급문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의 정의는 대량문화로서의 대중문화이다. 이것은 대중문화를 정의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중문화가 상업문화임을 강조한 정의이다. 그래서 대중문화란 대량소비를 위해 대량생산된 것이며, 관중은 무분별한 대량소비자 집단으로 보게 된다. 문화 자체는 어떤 공식에 의해 만들어지며, 대중 조작적이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

네 번째의 정의는 대중문화가 민중'(the people)으로부터 발생되는 문화라는 것이다. 이는 대중문화가 위로부터 민중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민중

10)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3쪽.

11) 스토리는 모두 일곱가지의 정의를 지적하였으나, 연구자는 마지막 일곱 번째의 정의, 곧 “산업화와 도시화에 뒤따라 일어난 문화”라는 정의는 앞의 여섯가지 정의 속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여 여섯가지만 서술하였다. John Story,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Simon & Schuster, 1993, 박모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18-32쪽; 스토리와는 다른 맥락에서 대중문화의 개념을 잘 정리한 사람은 프리스(Simon Frith)를 들 수 있다. 그는 대중문화를 세가지의 의미로 설명한다. 그것은 ① 대중을 위해(for) 생산된 문화요, ② 대중 자신의(of) 문화요, ③ 대중에 의한(by) 문화이다. Simon Frith, “popular culture,” in Michael payne, ed., *A Dictionary of Cultural and Critical Theory*, Cambridge, MA: Blackwell, 1996, pp.415-417.

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대중문화의 개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 나타나는 곳으로 간주되며, 매우 낭만화된 노동계급문화”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러한 접근의 문제점은 민중의 범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라는 자격에 관한 것이다.

다섯 번째의 정의는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정치적 분석 특히 그의 헤게모니(hegemony) 개념의 발전에 기인하는데, 대중문화란 사회 피지배계층의 저항력과 지배계층의 통합력 사이의 투쟁의 장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대중문화는 대량문화이론가들이 보는 위에서 강요된 문화도 아니고, 앞의 네 번째의 정의가 지시하는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대항적 문화도 아니다. 오히려 대중문화는 이들 사이의 교환이 일어나는 영역이며, 이 영역은 저항과 통합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입장을 선호하는 이들은 주로 대중문화를 지배-피지배 계급간, 지배-피지배 문화간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여섯 번째의 정의는 최근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에 의해서 소개된 포스트모던적 문화이다. 이 입장은 문화를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더 이상 구분하지 않으며, 이제 모든 문화가 포스트모던문화라고 주장하면서, 대중문화와 대량문화의 구분에도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든 문화란 상업문화라고 단언하면서, 포스트모던적 문화의 특색으로 상업과 문화의 상호침투(예컨대, 텔레비전 광고와 팝음악의 상호침투 관계 속에서 그 양자의 구분이 모호해짐)를 강조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대중문화의 개념에 근거하여 볼 때, 기독교 대중음악은 세 가지 차원에서 다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대중음악은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업적 문화라는 점이다. 수많은 CCM 음반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특정한 유형의 CCM 만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예컨대, 경배와 찬양의 유형이 왜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물론 대중들이 그런 유형의 CCM 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CCM 음반회사와 방송매체의 숨은 상업적 전략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CCM 은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생산된 기독교문화의 한부분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 대중음악은 지배와 피지배 그룹(혹은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현장 문화라고 특징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매우 시사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CCM 으로 불리우는 기독교대중음악은 특정 세대, 특히 10-20대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려지고 있다. 따라서 CCM 을 선호하는 청소년 그룹과 그것에 익숙지 않은 그룹 사이의 갈등과 투쟁이 존재한다. 이것은 기독교 음악을 고급 기독교음악과 저급 기독교음악 사이의 이분법적 구조로 보려는 뿌리깊은 기독교 신앙 내의 갈등에 기인한다. 특히 인터넷으로 특징되는 정보화시대의 도래 이후, 이러한 갈등의 폭과 변화의 속도는 가히 놀랄만큼 빠르

다. 왜냐하면 하나의 CCM 곡이 인기를 누리기까지 과거 같으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삼시간에 전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교회문화에 익숙한 그룹과 새로운 젊은 청년그룹 사이의 갈등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따라서 CCM 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세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혹은 상호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대중음악은 포스트모던적 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CCM 이 포스트모던적 형태의 문화라는 의미는 그것이 기독교적 고급음악과 저급음악으로 엄밀히 구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간격의 넘어섬이 장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근 기독교 대중문화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시도로서, 크로스오버'(cross-over)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 그것은 일종의 퓨전음악의 스타일로서, 기독교 대중음악 내에서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대화,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의 대화라는 차원에서 흥미를 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다. 사실 한국교회는 포스트모던의 용어에 대하여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오랫동안 보여왔던 것이다. 특히 포스트모던의 철학들이 진리의 상대성 및 지역성만을 강조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기독교의 절대성에 위협이 됨으로, 한국교회는 그러한 포스트모던적 경향 모두를 하나로 묶어 '이단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교회는 가장 포스트모던적 문화의 한 형태인 CCM 를 자신의 음악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한국교회가 갖는 이러한 이중성을 폭로시키고,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인도해야 할 과제가 있다.

### III. 기독교 대중음악의 신학적 실천들

앞에서 우리는 문화란 "의미를 만드는 실천"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런 개념 위에서 볼 때 기독교 대중음악은 기독교 신앙과 관련하여 적어도 신학적으로 세 가지 실천(praxis)<sup>12)</sup>지향의 문화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그것은 해방적 실천, 해석학적 실천, 그리고 영성적 실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해방적 실천으로서의 기독교 대중음악

12) 신학적인 측면에서 논의된 실천(praxis)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손원영, 《기독교교육과 프락시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제2부 참조.

이제까지 대중문화 연구들은 문화상품의 생산을 통해 어떻게 지배계급의 이익이 보호받으며 지배이념이 피지배층에 전달되고 설득력을 획득하는지 그 방식을 주로 연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대중 문화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피지배 집단의 종속적 지위를 영속화시킨다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현재 문화 연구의 주요 관심 중 하나는 이전의 그러한 경향 곧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용해독(變容解讀)의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작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텍스트와 이의 소비과정에서 지배이념에 대항하는 저항적 요소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유발하는 즐거움'(pleasure)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대중문화 연구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온 대중적 '엔기'의 요인을 즐거움 속에서 찾아내고 그 저항적이고 해방적인 측면을 발굴해 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sup>13)</sup> 일종의 저항이론(resistance theory)<sup>14)</sup>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연구 시각은 그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 체제가 제공하는 지배적 압력에 어떻게 저항하며, 그러한 저항적 행위를 통해 어떠한 즐거움을 얻는가라는 논쟁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각은 일반인들, 혹은 피지배 계층의 일상적 삶/문화가 지배계층에 의해 주어진 삶/문화 그대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지배 이데올로기와 지배문화와 다른 피지배층의 문화의 존재와 그러한 하위 문화가 갖는 정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저급한 문화산물로 분류되던 심지어 사탄의 음악으로까지 폄하되던 CCM 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텍스트적 즐거움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점에서 CCM 은 해방의 의미를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CCM 은 청소년층에게 예배음악 이전에 오락적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교회가 독점했던 기독교 음악의 범주를 교회 밖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독교 음악의 범주를 해방시키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해방의 실천으로 이해된다. 과거의 기독교 음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음악 정도로 이해되었으나, 이제 CCM 은 이전의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라는 제도와 기독교인이라는 제한된 범주를 넘어 일반인에게 그 영역을 확대하여 기독교적 즐거움의 범주를 넓힌 점에서 일종의 해방적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CCM 은 교회 내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어 연대

13) 김응숙, <일상소비와 즐거움>, 정재철편, 《문화연구이론》, 서울: 한나래, 1998, 136쪽.

14) 저항이론에 대해서는 Henry A. Giroux, *Theory and Resistance in Education: A Pedagogy for the Opposition*, South Hadley, MA: Bergin & Garvey, 1983 참조.

15) 김응숙, <일상소비와 즐거움>, 136쪽.

시키는 해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가 언급한 해방의 실천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하여 그들과 ‘연대함’(solidarity with the poor)으로써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16)</sup> CCM은 바로 그러한 해방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한국의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인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결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외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CCM의 활성화로 인하여 교회가 바뀌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침묵하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교회당에 울리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교회 내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기보다는 교회의 목회에 적극적으로 개입(involve ment)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해방적 사건이 된 것이다.

셋째, CCM은 평신도의 해방을 실현시키는 특징이 있다. 사실 전통적으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존재<sup>17)</sup>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교회의 기능은 종교개혁전통이 경계했던 성직자 중심주의로 다시 호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평신도신학이 등장한 이래, 평신도는 더 이상 교회 내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 issio De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분의 선교를 축하하며 동참하는 선교적 주체로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sup>18)</sup> 그러나 평신도는 선교신학의 영역에서 이론적으로 평신도의 해방을 경험했을 지는 몰라도, 여전히 교회 내의 교권적 구조로부터 실제로 해방을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CCM이 등장한 이후, 평신도는 드디어 성직자 중심주의의 교회구조로부터 보다 진전된 해방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CCM 사역으로 불리어지는 목회는 음악에 재능을 지닌 음악지도자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신도의 역할과 실천은 전통적인 성직자 중심의 교회론을 넘어서 평신도 신학이 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실천적으로 동참하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6) James B. Nickoloff, ed., *Gustavo Gutierrez: Essential Writings*, New York: Orbis, 1996, pp.143-145.

17) 이 개념은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개신교의 공통된 교회론 속에 반영되어 있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rans.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559, 1967, chap.IV, 1.9.

18) 평신도신학에 대한 자세한 것은 H.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R. Paul Stevens, *The Abolition of the Laity: Vocation, Work and Ministry in Biblical Perspective*, Cumbria, UK: Paternoster Press, 1999 참조.

## 2. 해석학적 실천으로서의 기독교대중음악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한국문화와 복음간의 지평융합 및 유기적 접목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 전체를 이교문화로 단정짓고, 선교사들의 가르침만 절대적으로 믿어왔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 한국의 문화창조 과정과 종교문화 유산 속에는 성서적 하나님의 구원경륜이나 고난의 민중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존, 그리고 성령의 내재적 활동같은 사실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해 왔다.<sup>19)</sup>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한국교회에 변화의 조짐이 불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과 한국문화 사이의 대화, 곧 해석학적 지평의 융합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CCM 을 통해서 그러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한국의 문화를 전통문화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기독교의 복음과 지평융합을 시도하는 접근이다. 특히 CCM 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한국전통음악과의 만남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이러한 시도는 기독교의 복음과 현대문화와의 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지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든다면, 먼저 이천진의 우리 가락 찬송을 들 수 있다. 특히 그는 최근에 발표된 앨범 「성령의 바람」(2003)을 통해, 대금, 피리, 해금, 가야금, 타악기, 및 피아노와 베이스를 이용하여 복음과 한국전통음악 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노래의 내용도 단순히 성서의 문자적 구절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지평융합된 가사를 담고 있음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홍순관의 음악도 상당히 시사적이다. 그는 그의 음반 「새의 날개」(1991), 「민들레 날고」(1994),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지」(2003) 등의 노래를 통해서 국악적인 스타일의 CCM 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기독교 복음을 현대문화의 차원에서 지평융합을 시도하는 접근이다. 이 접근은 앞의 접근 곧 한국의 전통문화와의 대화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문화란 전통문화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here and now)에서 한국인들이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도 중요한 한국문화라고 할 때, 한국문화는 바로 지금 청소년들이 즐기는 대중음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즐기는 대중음악의 장르는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펑크, 뉴웨이브, 레게, 재즈-록, 하

19)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 대화국에서 연구 발표한 ‘바아르 선언문’(Baar Statement, 1990)에는 타종교 문화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경륜과 성령의 역사와 현존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활동을 그의 신학적 독단으로 제약할 수 없음을 선언한 바 있다.

드록, 소프트록, 클래식 록, 헤비메탈, 디스코, R&B, 펑키재즈, 컨트리, 힙합 등을 들 수 있는데,<sup>20)</sup> 이러한 음악과 기독교 복음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에는 CCM 을 비롯한 대중음악의 음반이 나오기 이전에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또 M T V 등에서 다양한 현대 대중음악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음악장르와 기독교 복음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기독교 복음의 현대 대중음악적 표현에 청소년들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적어도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의 현대문화와 대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CCM 은 이웃종교와의 만남을 실천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종교문화는 그 동안 일반 대중문화에 비해 각 종교간의 경계선들이 명확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문화를 통해 드러나게 되며 불교와 이슬람 역시 그 문화를 통해 구분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각 종교마다 기도하는 형식이 다르며 미술이나 음악, 건축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 대중문화의 특성 중 하나는 대중음악과 같은 비종교적 문화가 종교문화에 급속히 침투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 종교가 본질이고 문화는 외양이자 껍질에 속한다고 할 때, 현대사회에는 껍질이 본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sup>21)</sup> 이것은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역전시킨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종교는 문화의 실체(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sup>22)</sup>라고 틸리히는 주장하였으나, 현대 대중문화에 와서 문화가 종교의 내용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음악이 기독교 문화에 침투되고 동시에 불교 문화에도 침투가 되어 외부적으로 양자 사이의 문화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세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현대 종교문화에 있어서는 더 이상 문화를 통한 차별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물론 그 고유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이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기독교음악과 불교음악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비종교인들조차도 기독교 찬송가와 불교의 찬불가를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서 그 노래가사를 듣지 않고

20) William D. Romanowski, *Pop Culture Wars: Religion & the Role of Entertainment in American Life*, Downers Grove, Ill: Inter Varsity Press, 1995; 신국원역, 《대중문화와 영적 전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p.272쪽.

21) 이광호, <학문으로서 기독교 문화 연구의 의의>, <http://salthouse.pe.kr/lecture1-6.htm>.

22)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ed. by Robert C. Kimba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p.42.

서는 그것이 기독교음악인지 불교음악인지 잘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게 된 것이다. 이것은 현대 대중음악이라는 장르 속에서, 종교간의 대화의 가능성이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든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CCM 가수 홍순관의 경우이다. 그의 CCM은 가끔 목탁소리처럼 들리는 불교적 색채가 가미된 CCM으로서 기독교음악과 불교음악 사이의 대화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3. 영성적 실천으로서의 기독교대중음악

CCM이 청소년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배경에는 단순히 CCM이 갖고 있는 음악적 성격 이외의 요소가 크게 작용한 점이 있다. 즉 CCM이 전통적인 교회 및 사회체계에 대한 청소년들의 해방구가 된 점이나 포스트모던화된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점 등 그 원인을 다양하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하나는 CCM이 새로운 영성의 요구에 실천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잉거브레튼(Engelbreton)이 종교성(religiosity)과 영성(spirituality)을 구분한 점이 시사적이다. 그는 이 양자를 구분하면서, 전자는 교회에 소속하거나 예배와 같은 공식적인 종교적 실천에 참여하는 등 제도화된 종교기관에 의해 형성되는 정서상태라고 한다면, 후자는 제도적인 종교기관과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3)</sup> 그런데 현재 미국의 상황은 종교기관에 출석하여 전통적인 형태의 신앙을 추구하는 인간의 종교성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면, 오히려 영성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과제는 종교성보다 어떻게 영성을 고양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그의 지적은 CCM이 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CCM이 이전의 세대가 중시했던 종교성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 곧 영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신세대들이 중시하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토마 베도인(Tom Beaudoin)의 주장이 설득력있다. 그에 따르면, 신세대들은 그들의 대중문화를 하

23) Kathleen Engelbreton, "Young People, Culture, and Spirituality: Some Implications for Ministry," *Religious Education* 98:1(2003): 5-24.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종교성과 영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종교와 종교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종교는 제도화된 신앙을 의미한다면, 종교성은 일종의 영성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용어를 선호하든, 현재의 신세대들은 전통적인 제도적 신앙(그것이 종교이든, 혹은 종교성이든)으로부터 벗어났을 지는 몰라도, 여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관심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Tom Beaudoin, *Virtual Faith: The Irreverent Spiritual Quest of Generation X*, San Francisco: Jossey-Bass Co., 1998, pp.23-33.

나눔을 만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영성이 탄생된다는 것이다.<sup>24)</sup> 그래서 그는 대중문화와의 만남, 특히 뮤직비디오와 CCM 등을 통해서 탄생된 신세대의 영성은 한마디로 ‘불신앙적 영성’(sensus infidelium : the sense of unfaithful)<sup>25)</sup>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불신앙적 영성이란 단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경멸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 아니라,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혹은 문화 속에 진리가 담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CCM 이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불신앙적 형태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의 종교적 의미는 기존의 신앙인들에게(sensus fidelium) 도전이 되고 새로운 영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불신앙적 영성은 결코 신앙적 영성과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불신앙적 영성의 한 형태로서 CCM 은 어떠한 영성의 실천을 지향하는가? 이것은 세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CCM 은 경험(experience)의 영성을 중시한다. 영성이란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구체적인 신체적 조건을 통해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대중음악은 개인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고, 감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융합시킨다. 특히 대중문화는 감각적인 경험의 영성을 출현시키는데, 그것은 제도적인 교회구조를 통해 박제화된 예수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갈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보도인은 감각적 경험을 유혹’(seduction)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성례전성’(sacramentality)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성례전성이란 우리 경험의 ‘화육적 성격’(incarnational character)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능성에 나를 개방시키는 것이다.<sup>26)</sup> 예를들어 CCM 을 부르거나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행위는 신체적 유혹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요, CCM 아티스트들이 몸에 장식을 하거나 문신을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러한 불신앙적 영성의 경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경배와 찬양의 유형의 CCM 이 공연되는 라이브 현장(혹은 열린예배)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고, 또 마음껏 웃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CCM 이 그러한 신체적 경험의 영성을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CCM 은 고난(suffering)의 영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어쩌면 성인들에게

24) Beaudoin, *Virtual Faith*, p.149.

25) 위의 글, 34쪽.

26) 위의 글, 166쪽.

낮선 어색한 개념일 수 있다. 왜냐하면 CCM 을 즐기는 신세대들은 대부분 이전 세대에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고난과 무관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대중문화는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의 세대가 간과했던 새로운 형태의 고통에 대하여 예민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CCM 를 통해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또 해결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해 여전히 여성차별의식이 뿌리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CCM 을 통해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며, 그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의 CCM 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 수많은 CCM 속에는 동성애(hom osexuality)나 AIDS, 그리고 낙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보드인이 언급한 것처럼, 성서에 반영된 고난이란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의 죄에 대하여 대속적 고난을 겪는 종의 고난이요,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땅이 올 것이라는 예언자적인 종말론적 표현의 실천이다.<sup>27)</sup> 따라서 CCM 은 비록 기성세대의 고난과 다른 차원이지만 고난의 문제를 성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CCM 은 모호성(am biguity)의 영성을 중시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에 상당히 도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진리는 확실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며 결코 모호하지 않는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CCM 에 반영된 영성은 오히려 모호성에 대한 허용이요,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예컨대, CCM 을 비롯한 대중문화는 어느 하나의 절대적 자아(self)를 상정하지 않으며, 또 상정할 수도 없다. 이것은 일종의 분절화된 자아(fragment ed selves)의 모습이요, 다중적 자아(m ultiple selves)에 대한 인정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수많은 ID 를 갖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미지는 어느 하나의 정체성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자아의 죽음(그것이 자살이든 혹은 살해되든)을 경험한다.<sup>28)</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CCM 을 비롯한 대중문화가 주는 의미는 회심에 의한 자아 형성도 단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도 절대적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이해도 어느 신학적 주장의 절대성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오직 모호성과 모호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실천의 형태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7) Beaudoin, *Virtual Faith*, p.119.

28) 그동안 사이버공간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ID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이며, 또 강제로 자신의 ID가 강퇴되거나 제거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살해됨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 CCM을 즐기는 네티즌들은 수 없이 자신(selves)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 IV. 기독교 대중음악과 종교교육의 방향

### 1. 기독교문화교육으로서의 교육목적

포스트만(Neil Postman)은 《교육의 종언》이란 책에서,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교육목적의 상실은 곧 교육의 종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교육목적의 설정이야말로 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sup>29)</sup> 이러한 포스트만의 주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교육목적의 선정은 교육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CCM은 한국 기독교 종교교육의 목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연구자는 여기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CCM과 관련하여 볼 때, 기독교 종교교육의 목적은 기독교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 종교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지배적이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의 나라로 전제한 뒤, 우리의 영혼이 내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즉 복음전도가 교회의 일차적인 기독교 종교교육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미약한 수준이지만,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치-경제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사회적 봉사로서의 디아코니아(diakonia)의 실천이 교육의 목적으로 상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양자의 교육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 시대가 문화의 시대라고 할 때, 이 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내세지향적 삶으로만 만족할 수 없으며, 또 과거처럼 정치-경제적인 구조적 억압의 문제에만 집착할 수 없다. 따라서 거대담론 형태의 교육목적 보다 오히려 미시적 차원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 특히 문화의 이해와 좋은 노래를 통한 바른 삶의 실천 등과 같은 기독교적 문화교육에 교육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교육의 목적은 의미의 생산과 실천으로서의 프락시스'(praxis)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문화의 개념을 살펴보았듯이, 문화란 어떤 객관적인 사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무엇인가 의미를 만들어 가는 실천(signifying practices)이라고 할 때, 종교교육의 방향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과 관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의 목적은 이미 만들어진 어떤 객관적인 것(심지어 그것이 CCM이라 할지라도)을 전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의미있는 것을 창조하고(함께 CCM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29) Neil Postman, *The End of Educa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95.

다. 특히 1990년대 이전의 교육이 주로 이데올로기적 실천의 삶을 중시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화적 실천의 삶을 중시하는 교육목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가 밝힌 CCM 과 관련된 해방적 실천, 해석학적 실천, 그리고 영성적 실천은 이 문화의 시대에 요청되는 교육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대중음악으로부터 요구받는 종교교육의 목적은 소위 성과 속의 엄격한 이분법적 한계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선기가 「대중문화도 거룩해질 수 있는가」<sup>30)</sup>에서 암시하였듯이, 대중문화도 거룩성의 범주 안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빛 하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더 역설적이지만, 보드인이 주장하였던, “활신앙적 영성”(sensus infidelium)의 개념을 한번쯤 고려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유대전통에 따라 속(俗)되었다고 생각했던 온갖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깨끗하다고 선언하시며 그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할 때(행11:1-10), 우리가 속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교육은 세속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또 적절한 것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속문화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왜곡된 기독교의 전통과 해석이 있다면 그것 역시 기꺼이 수정하려는 열린 자세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 교사/학습자의 이중적 정체성

기독교 대중문화 특히 CCM 이 교육현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교교육 교사와 학습자는 어떤 이미지로 자신의 상을 그려야 할까?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교육적 격언이 지시하듯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교사는 어떠한 태도로 CCM 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 연구자는 대중문화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의 태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습자는 대중문화의 주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대중문화의 개념에 대한 프리스(Frith)의 정의, 곧 “대중문화는 대중에 의한(by), 대중을 위한(for), 대중의(of) 문화”라는 주장을 수용할 때, 대중문화의 주체는 분명 대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보면 CCM 의 주체는 교사요 학습자이다. 그런데 CCM 의 상당수가 전문 아티스트에 의해 혹은 음반회사의 기획에 의해 제작되고 배포되는 과정에서 종종 CCM 의 주체인 교

30) 방선기, 《대중문화도 거룩해질 수 있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사와 학습자는 소외되는 것이 사실이다. 달리 말해 기독교 대중'음악'이라고 하면서 등장한 대부분의 CCM 은 그것이 대중적 합의를 거쳐서 생산된 것처럼 위장할 지라도, 교사나 학습자의 의견으로부터 대부분 독립된 채 기획제작되어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대중음악의 창작과 배포의 과정에서 대중은 대중 문화의 생산자도 아니고, 또 배포자도 아니다. 오직 소비자일 뿐이다. 이점은 종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종교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습자가 CCM 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소비자'(prosumer)<sup>31)</sup>로서의 이중적 자아정체감을 갖는 일이다. 여기서 생산소비자로서의 자아정체감을 갖는다는 의미는 교사와 학습자가 CCM 을 직접 작곡하고 연주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CCM 을 주체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CCM 을 수동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습자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민속지학자'(ethnographer)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속지학자란 마치 민속문화를 탐구하는 연구자처럼 문화적 다양성에 개방된 존재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중들이 즐기는 CCM 에 대하여 혹은 대중음악에 대하여 종교적 편견을 최소화하고 그것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속지학자로서의 자아정체감은 교사에게 주어진 은총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가 끊임없이 CCM 을 매개로 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속지학자로서 종교교육 교사의 일차적 역할은 교실에서 출현하는 문화적 역동성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spectator)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반성하고 실천하는(actor) 문화의 담지자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spec) 자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리자리(Jose R. Irizarry)는 이러한 교사상을 일컬어 '관찰-실천자'(spec-actor)라고 정의하였다.<sup>32)</sup> 이러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종교교육 교사는 단순히 민속지학자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관찰-실천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담지자로서 교사와 학습자는 교실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CCM 에 대하여 관찰하는 자이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을 기꺼이 학습자와 더불어 나누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

### 3. 다중문화로서의 교육내용

31) 생산소비자란 신조어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로 통합된 개념이다. 이것은 정보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전통적 의미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엄격한 구분이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고, 사이버공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원영,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15쪽.

32) Jose R. Irizarry, "Religious Educator as Spec-Actor," *Religious Education* 98: 3(2003): 373.

문화의 시대에 이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이분법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새로운 문화의 연구는 일상의 힘을 인식하게 되면서, CCM 부르고리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연구의 적합한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문화와 엘리트문화 사이의 인위적이며 이념적인 구분을 철저히 해체하면서, 사회 속에서 대중문화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sup>33)</sup> 이런 상황에서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무엇을 고려할 수 있을까? 연구자는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중문화적 교육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절대적인 것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기독교문화를 교육한다고 할 때, 과연 어느 누구의 기독교문화인가? 백인들의 기독교문화인가? 아니면 한국인의 기독교문화인가? CCM 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 미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CCM 인가? 아니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CCM 인가? 이런 상황에서 다중문화적 교육과정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교회 내의 지배적인 헤게모니에 따라 지배적인 문화 혹은 지배적인(인기있는) CCM 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중문화의 차원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록음악 스타일의 CCM 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면, 소수의 목소리로서 국악 스타일의 CCM 도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내용 선정시 대중문화 독해능력 혹은 미디어 독해능력(media literac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34)</sup>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대중문화를 향유하기 위하여 CCM 등을 교육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미디어 독해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CCM 의 창작과 생산, 그리고 유통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CCM 을 기독교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 CCM 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점들<sup>35)</sup>을 종교교육과정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 안에서 비판적 대화의 과정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CCM 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할 때, 가사와 곡 사이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33) Chandra Mukerji and Michael Schudson, eds., *Rethinking Popular Culture: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Cultural Stud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2.

34) 종교교육과 관련된 미디어독해능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nald A. Sarno, *Using Media in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7, chap.8 참조.

35) CCM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논쟁점은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선교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 사이의 논쟁, ② 세속성의 논쟁, ③ 음악산업과 산업성 논쟁, ④ 록스타일 수용 논쟁이 그것이다. 자세한 것은 양동복, 《새로운 대중음악 CCM》, 제4장 참조.

주제이다. 사실 CCM 아티스트계에서 일반적인 통념은 CCM 이 기독교음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임으로 어떠한 스타일의 곡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은가 질문하게 된다. 일찍이 맥루한(M arshall M cLuhan)이 언급한 것처럼, ‘미디어는 메시지이다.’<sup>36)</sup> 즉, 어떠한 미디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독특한 메시지가 전달되듯이, 어떠한 음악의 장르 혹은 스타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란 주제를 비트가 강한 전자기타로 연주하는 것과 목탁소리가 들어간 독경스타일로 연주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의 선택에 따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듯, CCM 의 스타일에 따라 담겨진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재미와 교수-학습과정

교육의 성패는 학습자의 학습성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자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는 내용이 학습자에게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교육학적 측면에서 볼 때, 재미는 전통적인 교육학적 연구의 소재인 흥미’(interest)의 확대개념으로써, 이미 화이트헤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절대조건으로 흥미를 주장한 바 있다.<sup>37)</sup> 따라서 종교교육은 그 본질상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동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 만큼 흥미 곧 재미가 중요하다. 만약 종교교육이 재미가 없다면 그것은 교육신학적 의미에서 ‘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훈이 우리말이 갖고 있는 ‘재미’의 차원을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는데, 효과적인 교수-학습과정을 위해 시사적이다. 우선 첫째는 감각적 재미이다. 이것은 변증법적 과정 없이 순간적인 느낌으로 생기는 재미이다. 이것은 레포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느끼는 일종의 오락성과 유희성으로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는 가치적 재미이다. 이것은 모종의 가치를 생산하는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재미이다. 여기서 가치적 재미란 일종의 유의미적 재미로서, 의미가 발생할 때 느끼는 재미이다. 셋째는 종교적 재미이다. 이것은 종교적 차원의 경험에 근거한 종교적

36) Ma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1964),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역, 삼성판 세계사상전집 37, 서울: 산성출판사, 1992, 299쪽.

37) A. N. Whitehead, *The Aims of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4, p.41.

재미로서, 성령의 운동력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발생한다.<sup>38)</sup> 이러한 세 가지 재미가 어느 하나 교육의 현장에서 소외될 수 없는 충임을 그는 역설하면서, 한국 종교교육의 현장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미의 이론(fun theory)에 근거하여 볼 때, 세 가지 차원의 재미가 발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CCM 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치김(Chi-Kim Cheung)의 주장은 시사적이다. 그는 종교교육에서 대중문화의 사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수업을 시작할 때 학습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대중문화를 활용할 경우 학습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sup>39)</sup> 그런데 그에 의하면 교수-학습과정에서 대중문화의 사용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지리학, 사회학, 영어, 역사 등을 교수할 때, 대중문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유독 종교교육의 영역에서만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종교교육을 위해 교수-학습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문화, 특히 CCM 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종교교육의 교수-학습과정의 효과성은 CCM 이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혹은 교사가 학습환경을 얼마나 잘 구조화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40)</sup> 그리고 종교교육 교수-학습과정시에 대중문화의 사용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시간의 부족, 대중문화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 그리고 자원의 부족 등임<sup>41)</sup>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였다. 특히 대중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종교교육의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와 소비지향적 생활풍조, 권위주의의 배경, 및 사이버세대로 특징되는 청소년들은 CCM / M TV 등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적극

38) 여성훈, 《재미없어 짜증난 하나님》,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1999, 188-191쪽.

39) Chi-Kim Cheung, "The Use of Popular Culture in the Teaching of Ethics/Religious Education: A Hong Kong Case," *Religious Education* 98: 2(2003): 197-220.

40) N. Clough and L. Newman, "Using Artifacts to Support Children's Learning in Religious Education,"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Humanities*, ed. by Martin Ashley, London: Falmer Press, 1999.

41) Chi-Kim Cheung, "The Use of Popular Culture in the Teaching of Ethics/Religious Education," pp.216-217.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종교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독교 종교교육은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토대로 기독교문화교육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 종교교육은 CCM을 비롯한 기독교 대중문화를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되, 경배와 찬양 유형이나 성도의 교제의 유형과 같은 교회중심적 문화에서 벗어나 이웃선교의 유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 종교교육이 기독교 문화교육으로 재개념화될 때, 그것은 문화적 실천(cultural praxis)을 교육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독교문화교육의 방향이 해방적 실천·해석학적 실천·영성적 실천 사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문화교육으로서의 기독교 종교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서둘러 실천 지향적인 종교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할 과제가 남아있다.

#### 《참고문헌》

- 강희철.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70호(1994.11).
- 김용숙. <일상소비와 즐거움>. 정재철편. 《문화연구이론》. 서울: 한나래, 1998.
- 방선기. 《대중문화도 거룩해질 수 있는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 손운산. <제3의 공간으로서의 교회>. 《문화쉼터 5주년 기념자료집: 아름다운 이들의 만남 문화쉼터》. 창천교회문화쉼터 사무국, 2000.
- 손원영. 《기독교교육과 프락시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_\_\_\_\_.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양동복. 《새로운 대중음악 CCM》.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0.
- 여성훈. 《재미없어 짜증난 하나님》.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1999.
-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1996.
-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 이광호. <학문으로서 기독교 문화 연구의 의의>, <http://salthouse.pe.kr/lecture1-6..htm>.
- Arnold, Matthew. Culture and Anarch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Beaudoin, Tom. Virtual Faith: The Irreverent Spiritual Quest of Generation X. San Francisco: Jossey-Bass Co., 1998.
- Cheung, Chi-Kim. "The Use of Popular Culture in the Teaching of Ethics/Religious Education: A Hong Kong Case." Religious Education 98: 2(2003).
- Clough, N. & Newman, L. "Using Artifacts to Support Children's Learning in

- Religious Education"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Humanities. Ed. by Martin Ashley. London: Falmer Press, 1999.
- Engelbreton, Kathleen. "Young People, Culture, and Spirituality: Some Implications for Ministry." *Religious Education* 98:1(2003).
- Frith, Simon. "Popular Culture." Michael Payne. Ed. *A Dictionary of Cultural and Critical Theory*. Cambridge, MA: Blackwell, 1996.
- Giroux, Henry A. *Theory and Resistance in Education: A Pedagogy for the Opposition*. South Hadley, MA: Bergin & Garvey, 1983.
- Irizarry, Jose R. "Religious Educator as Spec-Actor." *Religious Education* 98: 3(2003).
-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1964). 《미디어의 이해》. 박정규역. 서울: 산성출판사, 1992.
- Mukerji, Chandra & Michael Schudson. Eds. *Rethinking Popular Culture: Contemporary Perspectives in Cultural Stud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 Nickoloff, James B. Ed. *Gustavo Gutierrez: Essential Writings*. New York: Orbis, 1996.
- Postman, Neil. *The End of Educa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95.
- Romanowski, William D. *Pop Culture Wars: Religion & the Role of Entertainment in American Life*. Downers Grove, Ill: Inter Varsity Press, 1995. 신국원역, 《대중문화와 영적전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Sarno, Ronald A. *Using Media in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a.: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7.
- Stevens, R. Paul. *The Abolition of the Laity: Vocation, Work and Ministry in Biblical Perspective*. Cumbria, UK: Paternoster Press, 1999.
- Story, John.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Simon & Schuster, 1993; 박모역.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 Tillich, Paul. *Theology of Culture*. Ed. by Robert C. Kimba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 Whitehead, A. N. *The Aims of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4.
- Williams, Raymond. *Keywords*. London: Fontana, 1983.

---

원고접수: 11월 12일

1차심사: 11월 21일

게재승인일: 11월 30일

연구자 소개

① 전공: 기독교교육학 / 소속: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관심영역: 유교 종교성, 예학

③ 주요논저: 〈기독교교육과 프락시스〉, 〈프락시스와 기독교교육과정〉, 〈기독교  
교육의 재개념화〉

④ E-mail: sohnwo@hanmail.net

---

##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and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ohn, Won-Young

(Seoul Christian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popular culture which is focused on "Contemporary Christian Music"(CCM), and to explore some possibilities for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For more details, this paper follows three issues about CCM which are in debates. First of all, the researcher tries to clarify the definitions of popular culture as well as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in terms of what culture means by "signifying practices." Based on such definitions of popular culture, CCM w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models: worship and praise model, *communio sanctorum* model, and neighborhood mission model. Secondly, this paper argues that CCM could be theologically interpreted by three-folded theological praxes, i.e., liberating praxis, hermeneutical praxis, and spiritual praxis. Thirdly, following the above results, researcher tries to reconstruct th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Thus, this paper suggests to re-conceptualiz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as "Christian cultural education" rather than evangelization in postmodern cultural society, and to develop the new religious curriculum based on Christian popular cultures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popular culture,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signifying practices, Christian cultural education, praxis